

한국산림기술인회 NEWSLETTER 2024.02.



www.tkfea.or.kr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경
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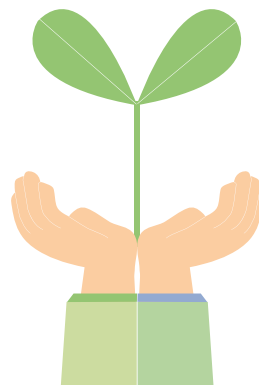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입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꽃과 나무들이 가지개를 펴는 **3월**로 접어들면서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 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찌부둥한 마음을 활짝 펴고 활기찬 한달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달 우리 회 소식은?



2월 15일
제1차 정기 이사회



2월 5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월 6일 ~ 2월 7일
2024년도 종합감사 실시



2월 19일 ~ 23일
제1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3월 교육과정 안내!



- 3월 18일(월) ~ 3월 22일(금) 제1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제1기 산림경영 + 공학기술 전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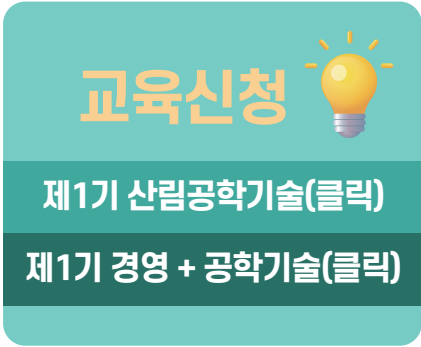
※ 과정별 클릭 시 해당 과정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70명 모집



제1기 산림공학기술(클릭)
제1기 경영 + 공학기술(클릭)

※ 해당 교육은 최소인원(20명) 미충족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7	18 개강 제1기 산림공학기술전문과정 교육	19	20	21	22 수료	23
24	25 개강 제1기 공학+경영전문과정 교육	26	27	28	29 수료	30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원 홈페이지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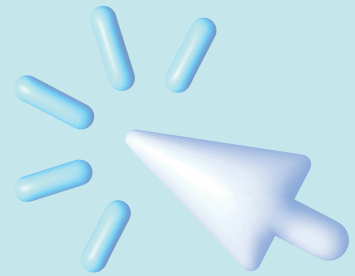


2024년

“교육기관별 연간 법정교육 안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법정교육) 교육기관과
교육이수 대상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확인하러 가기



NEWS

<http://www.tkfea.or.kr> |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NEWS PAPER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해 성과 돌아봐 ...

임원·대의원, 업무분회 등 50여명 참석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리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전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사진 = 지난 27일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중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에서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이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새로운 숲을 만나다”

독일 토트모스 지역의 숲(슈바르츠발트 획벌림)

글·사진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획벌림은 실제로는 숲을 갱신하는 작업종으로 갱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숲의 형태로 갱신기간이 20~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특정 숲처럼 여기게 된다. 획벌에 의한 갱신이 완료된 직후에는 어린나무들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나무의 크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일제교림으로 발달한다. 획벌갱신을 하는 숲의 주요수종은 독일가문비나무이며, 전나무와 너도밤나무가 약간씩 섞여 자라고 있다. 슈바르츠발트에서 획벌림으로 유명한 곳은 상트 메르겐(St. Maergen)으로 남부 슈바르츠발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획벌림이 많은 지역인 토트모스지역은 슈바르츠발트 동쪽지역에 있는 전형적인 산림지역으로 주위가 모두 숲으로 싸여있다.

어린 가문비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숲



토트모스 지역의 숲 중 대표적인 숲의 형태는 다층을 이루고 있는 택벌림의 형태에 가까운 숲들이다. 토트모스에서는 획벌작업을 실시하여 숲의 형태를 단층 단순림에서 다층구조로 이루어지는 택벌림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림이 가지고 있는 숲의 단순구조를 다층으로 만들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에 이바지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숲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모양은 숲의 높이가 균일하지 않고 소면적을 나무의 높이와 굵기가 다른 나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큰 가문비나무들이 잘리고 그 빈자리에 어린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숲이다. 소면적으로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주위에는 나무높이 30m이상의 큰나무가 서있어 마치 어린나무를 큰 나무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나무가 자라는 뒤쪽에 큰 독일가문비나무는 굵기가 60cm 이상이 되고 높이가 30m이상이 되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큰 독일가문비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벌채가 된다. 이렇게 작은 나무들 주위의 큰나무가 없어지면 가운데 있는 가문비나무가 잘 자라기 시작하고 주위는 어린 가문비나무들이 자라게 되어 옆에서 보면 어린나무들이 자라는 부분의 중심부의 나무높이가 높고 주위의 어린나무 키가 작은 정삼각형모양이 나타난다.

넓어진 공간에 자라는 어린나무



어린가문비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이의 숲들은 나무높이 30m이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어린나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독일가문비의 솔방울이 가지 끝에 주렁주렁 아래로 처져 달려있는 모양은 마치 고추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숲사이를 거닐다 보면 큰 독일가문비나무도 없고 작은 독일가문비나무도 자라지 않는 빈공간이 폭 3~4m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나있고 여기에는 풀들만 자라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 공간은 숲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길로 벌채된 나무를 수집하기 위한 집재기계가 들어가 작업하기 위한 작업로이다. 이러한 길은 보통 30~40m 간격으로 있다.

가문비나무 대경목이 자라고 있는 숲



초지처럼 보이는 작업로



위와 같이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는 작은 숲과 면적 넓은 어린나무 숲 그리고 큰 독일가문비 나무가 하늘은 뒤덮은 숲 그리고 숲 사이로 난 작업로가 예측할 수 없고 나타나는 숲은 마치 전혀 다른 숲들이 섞여있는 듯하여 숲이 변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숲에 나있는 큰길(임도)에 서있으면 세월에 따라 변화는 숲의 모양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느낄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질 정도이다.



토트모스 획벌림 사이로 난 길

토트모스에서 멀지 않은 슈바르츠발트내의 상트 메르겐 영림서는 획벌갱신으로 유명한 곳으로 지금도 대부분 획벌갱신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획벌갱신과정을 통해 일제교림을 유도하기보다는 택벌림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전환은 택벌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생태적 장점을 살려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독일가문비나무 단순림에서 군상으로 소면적 벌채를 하여 이 자리에 어린 전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 천연치수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데 독일가문비나무를 조금 제거하면 전나무가 많이 발생하게 한다.



택벌림에 도달한 숲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상층 독일가문비나무를 제거하면 기존에 자라던 전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가 중간크기로 자라고 이 아래 천연치수가 발생하여 자라 자연적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택벌림이 이루어진다.

자세히 보기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SNS 채널**에 접속하세요



친구추가



가입하기



이웃맺기

(클릭하시면 해당 SNS로 이동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주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및 회원문의)
대표팩스 (042) 489-8581 / www.tkfea.or.kr

※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shekdm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발행일 2024년 3월 4일(월요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